

법칙과 마음의 존재론적 지위

김 광 수
(한 신 대)

1

인류의 지성사는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끊임 없이 '귀신'을 몰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옛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정신이 깃들여 있고, 이 정신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소수의 신들을 제외한 모든 존재자들로부터 정신을 제거하고, 자신들과 우주의 운명이 이 소수의 신들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어서 사람들은 군소 신들로부터 신성(神性)을 박탈하고 천하를 평정하여, 천하대권을 유일신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유일신이라고 해서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 유일신의 사망을 선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자기자신들로부터 마저도 정신을 박탈하기에 이르른다. 존재하는 것은 물질 뿐이다. 정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질일 뿐이다. 자연 현상은 물론, 인간의 삶 및 사회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물질의 원리에 의해 일어난다. '물질독재주의,' 즉 유물론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유물론적 사상은 물론 현대 지성의 전유물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유물론이 대세를 지배하게 된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이다. '현대인'이란 유물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이고, 유물론적 사고를 해야 현대인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가, 물질계를 지배하는 힘으로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진화를 멈춘 이상한 동물이나 되는 것처럼 취급되고, 그들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마치

‘진리’의 대오에서 낙오한 패잔병을 바라보는 것처럼 연민에 차 있게 마련이다.

과연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자연의 질서를 관장하는 어떤 관념론적인 설계도 같은 것은 없는 것일까? 인간사도 자연사의 일부에 불과한가? 이러한 질문들은 아직도 철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물음들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접어두고, 유물론자들이 ‘철학적 귀신쫓기 (philosophical exorcism)’의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즉 ‘물질적 세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차지하는 존재론적 위치는 무엇인가’에 관하여 탐구해보고자 한다. 철학적 귀신쫓기를 가능케 한 것은 물론 과학의 발전이었다. 그리고 과학의 뼈대는 법칙이다. 따라서 법칙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최근에 김재권 (Jaegwon Kim) 교수는 유물론적 이론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빗슨 (Donald Davidson)의 무법칙적 일원론, 포돌 (Jerry Fodor)의 기능주의, 그리고 김교수 자신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정립한 수반이론이 비환원주의를 표방하는 한 ‘신화’에 불과하다고 혹독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유물론적 이론이 정립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그는 아침에 왜 우산을 들고 나갔는가? 그는 라디오 일기 예보를 통해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이라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귀가길에 비를 맞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왜 아스피린을 먹었는가? 그녀는 감기에 걸렸고, 아스피린이 감기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좋다는 것을 알았고, 감기의 증상을 치료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믿음들과 바램들에 따라 행동한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펼쳐진 인식의 그물에 문제 상황이 포착되면, 그 문제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이 평범한 사실이야말로 현대의

유물론자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난전을 벌이게 하는 태풍의 눈인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 보자.

방금 거론된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 및 바램등의 정신 현상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손톱 밑에 박힌 가시는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인과 작용을 한다. 행위를 할 때는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의 원인이 되며, 인식을 할 때는 물리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¹⁾

이러한 ‘심신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론적 산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평범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평범한 사실이 현대인의 ‘과학적’ 세계관과 충돌을 빚는다는 것이다. 열역학 제1법칙(물리적 세계의 폐쇄성 원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물리적 세계는 폐쇄되어 있다. 물리적 세계 밖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 올 수도 없고, 물리적 세계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 나갈 수도 없다. 이 원칙에 따르면, 물리적 사건에 대한 원인은 반드시 물리적 사건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의 몸을 움직인 원인은 물리적인 사건이 된다. 우리는 ‘몸의 움직임’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개의 원인(정신적인 원인과 물리적인 원인)을 가지게 된 셈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개의 원인’ 문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따라서, 모든 철학적 이론들의 시작이 그러하듯이, 이 당황스러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설명을 하려들고, 그래서 심심 문제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Cartesian dualism: substance dualism)이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그의 이론이 ‘하나의 물리적 사건에

-
1. 이 글은 정신 현상에 대한 특별한 용어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정신 현상,’ ‘정신적 사건,’ ‘정신적 속성,’ ‘정신적인 것,’ ‘마음’ 등의 표현을 문맥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물리적 현상,’ ‘물질적 현상’ 등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한 두 개의 원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한 데 있었다. 그는 마음을 물리적 세계 밖에 두면서도 물리적 세계 안에 있는 몸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겼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물리적 세계의 폐쇄성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었고, 현대 과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양자택일을 해야 했을 때 물리적 세계의 폐쇄성 원칙 때문에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거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포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는 물리적 세계의 폐쇄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신적인 원인'의 정체를 설명하는 문제가 남는다. 손쉬운 방법으로, 정신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의 부수 현상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인 것은 전혀 인과적 힘을 가질 수 없는, 물질적인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부수 현상론(epiphenomenalism)'은 두 개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원인 중 하나를 버리는 것으로서, 심신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우리의 신념과 배치된다. 또 한 가지 손쉬운 방법은, 정신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거적 유물론(eliminative materialism)'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³⁾ 그러나 이 입장 또한 두 개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것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서(이 경우는 정신적인 것이 그림자조차 되지 못한다), 목욕물을 버리면서 어린애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물론 부수 현상론이나 제거적 유물론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대안들을 걸쳐 놓고, 정신 현상의 실재론과 인과적 효율성을 전제하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두 개의 원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논리적 행동주의자(logical behaviorist)들은 정신 현상을 기술하는

-
2. Kempbell, *Body and Mind*; Woodhouse, "A New Epiphenomenalism?"
 3. Rorty, "Mind-Body Identity, Privacy, and Categories," 및 Churchland, Patricia, "A Perspective on Mind-Body Research" 와 Churchland, Paul, "Eliminative Materialism and the Propositional Attitudes" 참조.

모든 심리적 용어들이 행동 및 행동 성향을 가리키는 물리적 용어들로 번역될 수 있다는 '번역주의적 환원'의 전략을 제시하였다.⁴⁾ 그러나 논리적 행동주의는 그 이론의 근거이었던 논리실증주의의 몰락과 함께 단명으로 그치고 말았다. 논리적 행동주의의 야심이었던 심리적 용어들의 번역이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이다.⁵⁾

정신 현상의 실재론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한 사건에 대한 두 개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가 정신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물리적 사건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 행동주의가 내세운 '물리적 사건'은 행동 및 행동 성향을 나타내는 거시적인 물리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논리적 행동주의가 퇴물이 된 상황에서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사건과 동일시 되는 물리적 사건을, 거시적인 행동 및 행동성향등의 거시적 차원의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대뇌 및 중추신경에서 일어나는 미시적인 물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파이글(Herbert Feigl)과 스마트(J. J. C. Smart)의 '심신동일론(psychophysical identity theory)'이었다.⁶⁾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신경과학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의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근육이 수축한다는 것이고, 근육은 그 근육에 뻗어 있는 신경의 끝에서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이라는 화학 물질이 분비됨으로서 수축되며, 이 화학 물질은 대뇌에서부터 전달된 전기적 신호를 받아 분비되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란 사실 대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물리화학적 반응을 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두 개의 원인' 문제는 산뜻하게 해결된 듯 싶었다. 경험론적인 의미론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프레게(Gottlob Frege)의 의미론은 심

4. Hempel, "The Logical Analysis of Psychology".

5. Chisholm, Perceiving.

6. Feigl, "Mind-Body, Not a Pseudo-Problem": Smart, "Sensations and Brain Processes."

신동일론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이론이라는 뒷받침을 하고 있었고, “번개는 구름을 형성하고 있는 물 분자들의 이온화로 인한 전기 방전이다”와 같은 과학적 동일성 논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심신동일론의 참됨을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다.

그러나 심신동일론도 청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무너지게 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심신동일론의 몰락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충격은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anomalous monism)과 퍼트남-포돌의 기능주의(functionalism)로 인한 것이었다.⁷⁾ 두 이론은 모두 심신동일론이 함축하고 있는 ‘정신적 사건의 물리적 사건으로의 법칙적 환원’을 거부한다. 재미있는 것은 반환원주의를 표방하는 두 이론이 서로 전혀 다른 길을 통해 ‘정신적 세계의 자율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이론은 각각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태두리 안에서 인간의 자율성을(따라서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대다수의 영미 철학자들을 매료시켜왔다. 이 이론들에 대한 비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두 이론의 위력을 손상시키는 것은 못되었다.

두 이론의 매력과 설명력을 능가할만한 이론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환원적 유물론은 거의 정설로서의 자리를 굳혀가는 듯 했다. 그러나 1989년 미국 철학 연합회에서 김재권 교수는 이 양대 이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비환원적 유물론이 잘못되었다는 폭탄선언을 하게 된다. 만일 김재권 교수의 견해가 옳다면, 과거 이십여년간 수없이 많은 강의와 논문 및 저서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논의들이 공염불이 된다. 과연 김재권 교수가 옳을까? 논쟁의 대강을 살펴보기로 한다.⁸⁾

-
7.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은 Davidson, “Mental Events,” “The Material Mind,” “Psychology as Philosophy” 등에서 제창되었다. 기능주의적 이론을 위해서는 Putnam, “The Nature of Mental States”와 Fodor, *The Language of Thought* 및 *Representations*를 참조하라.
 8. 김재권, “비환원적 유물론의 신화.” 김재권 교수는 이 글 외에도 최근에 발표되거나 진행중인 논문들 속에서 비슷한 견해를 펴려하고 있다. Kim, “Concepts of Supervenience,” “Mechanism, Purpose, and

유물론은 정신 현상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물질의 산물이라고 믿는 입장이다. 유물론자들은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요소로서 가장 미시적 차원의 물리적 입자 같은 것을 가정하고, 그 입자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거시적 차원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유물론적 직관에 의하면, 세계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적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물질적 입자들은 세계 안의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기본적인 단위이며, 이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물질적 입자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적 속성이 세계를 형성한다. 즉,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론적인 근원은 물질적 입자들이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러한 물질적 입자들 뿐인 것이다.

이러한 유물론적 직관은 물론 유물론적 이론들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러한 직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질적 입자들이 결합하는 방식과 관계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현격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신 현상의 실재론을 옹호하면서도 두 개의 원인 문제를 신뜻하게 해결하는 듯 싶었던 심신동일론이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이론이 심신 동일성의 법칙성을 함축한다는 데 있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정신 현상은 매우 견고한 물리적 기반을 갖는다. 심신 동일성 관계가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성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C-신경의 자극이다”는 주장은 현재에만 참인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어느 때에도 참이며, 나의 경우나 인간의 경우에만 참인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아니 모든 존재자들의 경우에도 참인 것이다. ‘C-신경 자극’이라는 유형으로서의 ‘기본적인 물리적 입자들의 관계적 속성’은 ‘고통’이라는 유형으로서의 정신적 속성을 실현시키며, 고통이 존재하는 경우는 언제나 ‘C-신경

Explanatory Exclusion,” “Explanatory Exclusion and the Problem of Mental Causation,” “Emergence, Nonreductive Physicalism, and the Problem of ‘Downward Causation’”, “The Disunity of Psychology as a Working Hypothesis?” 등을 참조하라.

자극'이라는 유형으로서의 '기본적인 물리적 입자들의 관계적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장된다. 그래서 '유형 동일론(type identity theory)'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이론은 'Mi→Pi' 형식의,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을 법칙적으로 연결하는, '교량법칙(bridge law)'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 'Mi'와 'Pi'는 각각 임의의 정신적 속성 유형과 물리적 속성유형을 의미한다.)

심신 동일성 관계가 법칙적이라는 것은, '두 개의 원인'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는 있다. 정신적인 것은 물리적 세계 안에서 매우 확고한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물리적 세계의 '법칙적인 기생자(nomological dangler)'가 아니며, '심신 동일성 관계의 법칙성'이라는 매우 견고한 닻을 통해 물리적 세계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⁹⁾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강력한 심신 관계가 교량법칙을 통해서 정신적인 속성을 물리적 속성에도 환원되게 하는 결과를 빚고, 이러한 환원은 우리가 정신 현상의 인과적 역할에 부여하고 있는 '자율성'이라는 속성을 박탈한다는 것 이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의 몸은 거대한 물리-화학-생물학적 공장으로서, 그 공장은 물리-화학-생물학적 법칙에 따라 가동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물리-화학-생물학적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바램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심신 동일성 관계의 법칙성'과 '인간의 자율성'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칙성을 받아들이면, 나의 생각과 바램에 대응하는 물질적 유형이 있고, 이 물질적 유형은 물리-화학-생물학적 원칙에 따라 작용할 터인데, 이 경우 나의 행위가 나의 생각과 바램의 산물이 아니라 물리-화학-생물학적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건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인간의 자율성 원칙에

9. Feigl, "The 'Mental' and the 'Physical'"에서 파이글은 물리적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부여 받지 못하면서도 물리적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듯 한 정신 현상을 '법칙적인 기생자'라 부르고 있다.

어긋나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의 자율성 원칙을 포기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데이빗슨은 칸트의 뒤를 이어 자연의 필연성과 행위의 자율성 중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행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물론적 이론의 정립을 피한다. 데이빗슨은 이를 위해 다음 세 원칙들을 제시한다.¹⁰⁾

P1 : 적어도 일부의 정신적 사건들은 물리적 사건들과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심물 인과 관계 원칙)

P2 : 인과 관계가 있는 데는 법칙이 있음에 틀림 없다. 즉, 인과 관계로 얽혀 있는 사건들은 엄밀한 결정론적인 법칙의 지배 아래 있다. (인과 관계의 법칙성 원칙)

P3 : 정신적인 사건들을 설명하고 예측케 할 수 있는 엄밀한 결정론적인 법칙은 없다. (정신적인 사건의 무법칙성 원칙)

나아가 데이빗슨은 일종의 ‘물리주의적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견해를 피력하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P4 :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은 미시적인 물리적 입자들을 관계시키는 차원에만 존재한다. (물리적 세계의 법칙성 원칙)

이 원칙에 따르면, 오직 물리적 법칙만이 엄밀하고 결정론적이며, 미시적인 차원을 넘어선 거시적 차원에는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들을 받아들이면,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이 도출된다. (1)에 의해, 어떤 정신적 사건 m 이 물리적 사건 p 와 인과 관계를 맺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우리는, (2)에 의해, m 과 p 의 인과 관계가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하게 있음을 안다. 그런데 (3)과 (4)에 의하면, 이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은 심리 법칙이나 심물 법칙이 아니라 물리 법칙이다. 따라서 우리는 m 과 p 의 인과 관계가 물리 법칙 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m 과 p 의 인과 관계가 물리 법칙 하에 있다는 것은, m 도 물리 법칙 하에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m 이 물리적으로 기술된다는 것을

10. Davidson, "Mental Events."

함축한다. 그리고 m 이 물리적으로 기술된다는 것은 m 이 물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한다. 데이빗슨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든지 물리적 용어로 기술되면 물리적 사건이 되고, 정신적 용어(명제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들)로 기술되면 정신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떤 정신적 사건이든지 어떤 종류의 인과 관계를 갖기만 하면 그것이 물리적 사건이라는 증명을 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정신적 사건은 무법칙적이기 때문에, ‘무법칙적 일원론’이 된다는 것이다. 데이빗슨의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물리적인 것이며, 그 중 일부는 정신적인 것이기도 한데, 이 경우에 형성되는 심신 동일성은 유형 동일성이 아니라, 개별적인 정신적 속성과 개별적인 물리적 속성이 심물 교량 법칙과 같은 법칙의 매개 없이 이루는 무법칙적인 동일성인 것이다. 그래서 데이빗슨의 이론을 ‘개별자 동일론(token identity theory)’라고도 부른다.¹¹⁾

데이빗슨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이원론적으로 설명된다. 우리가 행위를 불러 일으키는 법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행위는 순수한 물리적 현상으로서,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의 지배 하에 있다. 그러나 법칙적으로 설명된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되지 못한다. 법칙적으로 설명된 ‘행위’는 행위가 아니라 물리적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행위를 행위로 보존하는 설명의 원칙은 합리성에 있다. “[심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들에 가해진 제한은 자연에 의해서 가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목표와 목적을 가진 합리적 행위자로 그리고 도덕적 평가의 주체로 볼 결심을 할 때 우리 자신에 의해 가해지는 것이다.”¹²⁾

데이빗슨이 행위를 이원론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의 결과에 대한 두 개의 원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몸의 움직임에 대한 ‘존재론적인 원인’은 물리적인 것 뿐이기 때문이다. 행위를 합리성의 틀에서 설명하는 것은 몸의 움직임에 대한 존재론적인 원인이 아니라 ‘규범적인 원인’을 인정하는 것일 따름인 것이다.

11. 필자의 논문, “데이빗슨의 心身論” 참조.

12. Davidson, “Psychology as Philosophy,” p. 239.

심신 유형 동일론이 요구하는 심신 동일성의 법칙성을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퍼트남과 포돌은 데이빗슨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퍼트남과 포돌의 이론은 데이빗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다. 퍼트남과 포돌이 심신 유형 동일론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게 하였던 것은 ‘복수 실현 가능성’이라는 강력한 교두보를 확보한 데 있었다. 그들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든지 다양한 물리적 조건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동일한 물리적 조건이 다양한 정신적 사건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지금은 평범하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견해를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인간의 대뇌에서 일어나는 C-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의 뇌가 아닌 다른 생명체의 뇌에서 일어나는 C-신경의 자극이 아닌 다른 신경의 자극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컴퓨터 칩이나 어떤 다른 물리적 구조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퍼트남과 포돌의 견해는 유물론적 직관이 ‘물질 본질주의’적인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었다. 전통적인 유물론자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물질 자체가 가진 어떤 불변하는 속성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신적인 속성의 존재론적 지위를 논할 때도 항상 물질적 속성과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퍼트남과 포돌에 따르면, 존재자들의 속성은 물질 자체가 가진 속성이 아니라, 물질의 관계적 속성이 된다. 컴퓨터의 화면에 ‘마음’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컴퓨터의 물질적 본질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컴퓨터일지라도 그 글자가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일종의 ‘유물론적 시각의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³⁾

정신 현상의 복수 실현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심신 동일론은 무너진다. 물질 본질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환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환원 없는 심신 유형 동일론은 그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 현상

13. Lycan, “Psychological Laws” 참조.

을 여러 다른 물리적 구조가 기능하는 데 따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기능주의(functionalism)'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기능주의는 환원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과 같다. 그러나 정신적인 세계의 자율성에 관해서, 데이빗슨은 단지 규범적인 지위만을 부여한 데 반하여, 기능주의자(특히 포돌)는 문자 그대로의 존재론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물질 본질주의자가 '물질 우선'의 입장을 취한 반면, 기능주의자는 '정신 우선'의 입장을 취한다고도 볼 수 있다. 포돌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기능주의자는 '실체'없는 데카르트인 것이다. 퍼트남은 후일 기능주의적 입장을 버렸다. (그리고 필자가 어떤 기회에 사적으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그는 '범심론(panpsychism)'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나 퍼트남의 제자였던 포돌은 기능주의가 영미 철학권에서 가장 촉망 받는 심신 이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포돌의 입장은 뒤에서 좀 더 깊이 논의될 것이다.)

'두 개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법칙적 일원론과 기능주의는 다같이 정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것이거나(데이빗슨) 물리적 구조가 실행하는 기능(퍼트남과 포돌)이라고 한다. 김재권 교수는 이러한 입장을 모두 '비환원적 유물론'으로 여기고 비판한다. 이제 김재권 교수의 비판을 들어보자.

4

김재권 교수에 의하면,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은 제거주의에 가까운 이론이다. 데이빗슨이 제시하는 존재론 속에서는 정신적 사건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무법칙적 일원론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 만일 당신이 정신적 속성들을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사건들에 재분배한다면, 데이빗슨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인과 관계의 그물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정신적 속성들을 사건들에 닥치는 대로 아무렇게나 재부

역할 경우, 또는 세계로부터 정신을 완전히 제거할 경우, 단 하나의 인과 관계도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 인과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설명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인과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¹⁴⁾

위에서 우리는 데이빗슨이 ‘심신 인과 관계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데이빗슨의 이론이 정신적인 속성에 인과적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김재권 교수의 비판은, 데이빗슨이 인정한다고 하는 심신 인과 관계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그 정당성이 결정될 것이다.

데이빗슨은 분명 심신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단지 이 심신 인과 관계가 법칙적인 인과 관계가 아니라는 것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존재론적 인과 관계의 원칙 :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과관계’는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으로 예화되는 인과 관계 뿐이다.

데이빗슨은 우리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인과 관계 진술들은, “어제 석간 동아일보에 보도된 홍수가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한강 범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법칙을 예화하지는 않지만 참된 단칭 인과 진술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데이빗슨에 의하면, 동일성과 인과 관계는 존재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며, ‘참된 단칭 인과 진술’이란 존재계에서 발생하는 ‘참다운 인과 관계’를 보고하는 진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관심 구조를 반영하는 인과 관계 진술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빗슨이 위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데이빗슨이 위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김재권 교수의 비판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데이빗슨의 세계 속에서 인정되고 있는 심신 인과

14. 김재권, “비환원적 유물론의 신화,” 220-221.

관계의 성격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으로 예화되는 인과 관계, 즉 존재론적인 인과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신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진술은 존재론적 인과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관심과는 무관한 규범적인 관심을 반영할 뿐인 것이다.

김재권 교수에 의하면, 기능주의의 '복수 실현 가능성' 논증은, 정신적 속성 유형들의 물리적 속성 유형들에로의 총괄적 환원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며, 국지적 환원과 양립하는 견해이다. 어떤 정신적 속성이 다양한 물리적 속성들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물리적 속성 하나 하나가 그 정신적 속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도의 '인정'은 기능주의의 의도와는 달리 종특정 환원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

복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각각 하나의 물리적 상태를 특정한 정신상태를 실현하기에 법칙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는 심물 법칙들이 있음에 분명하다. [...] 즉 종 또는 구조 S_i 에 상대적으로, 정신적 상태 M_i 가 발생하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으로서 어떤 물리적 상태 P_i 를 규정하고 있는, ' $S_i \rightarrow (M_i \leftrightarrow P_i)$ '와 같은 형식의 법칙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심리적 상태들이 복수적으로 실현된다면, 그것은 단지 심리학의 국지적 환원이 복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복수 실현 논증은, 만일 그것이 옳다면, 총괄적 환원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 국지적 환원은 충분한 환원인 것이다. ¹⁵⁾

만일 김재권 교수의 견해가 옳다면, '두 개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환원적 유물론자들의 이론들은 '신화'에 불과하게 된다. 김재권 교수는, 그 자신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정립시킨 수반이론조차도 국지적 환원을 함축하는 것으로 여기고, 물리적 세계의 폐쇄성 원칙 때문에 데카르트의

15. 김재권, "비환원적 유물론의 신화," 224-5.

이원론을 거부하는 유물론자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은 환원주의와 제거주의 중의 하나로 좁혀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신 현상의 실재론을 받아들이는 유물론자에게 남은 유일한 대안은 환원주의가 된다. 과연 그러할까? 김재권 교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원을 거부하면서 유물론을 견지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이 아직도 의미 있게 물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원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바램에 따라 행위하고 살아간다는 믿음을 '신화'로 만들어 버리며, 우리는 이 신화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5

김재권 교수가 '(국지적) 환원주의'를 유물론자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은 논증을 빌어 나타낼 수 있다 :

- (1) 정신 현상은 물리적 세계 내에 실재한다. (정신 현상의 실재론)¹⁶⁾
- (2) 만일 정신 현상이 물리적 세계 내에 실재한다면, 정신 현상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과적 역할을 한다. 즉, 만일 정신 현상이 물리적 세계 내에 실재한다면, 정신 현상은 물리적 현상과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과 관계를 갖는다. (심물 인과 관계 원칙)¹⁷⁾
- (3)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과 관계'는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으로 예화되는 인과 관계 뿐이다. (존재론적 인과 관계 원칙)
- (4) 만일 정신 현상이 물리적 현상과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과 관계를 가지며,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과 관계'는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으로 예화되는 인과 관계 뿐이라면, 심물 인과 관계는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으로 예화될 수 있는 것이다.
- (5)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은 미시적인 물리적 입자들을 관계시키는 차원에만 존재한다. (물리적 세계의 법칙성 원칙)
- (6) 심물 인과 관계가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으로 예화될 수 있는

16. 김재권, "비환원적 유물론의 신화," 229.

17. 김재권, "비환원적 유물론의 신화," 229-230.

□ 김 광 수

것이며,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은 미시적인 물리적 입자들을 관계시키는 차원에만 존재할 경우, 정신적인 현상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 (7) 총괄적 환원은 거짓일 수 있다.
- (8) 만일 정신적인 현상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환원되어야 하고, 총괄적 환원이 거짓일 수 있다면, 정신적인 현상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국지적으로라도 환원되어야 한다.
- (9) 따라서 정신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으로 국지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김재권 교수가 그의 견해를 이와 같은 '꾸러미'를 만들어 제시한 바는 없다. 그러나 그가 발표한 논문들(특히 앞에서 소개한 최근의 것들) 전반에 깔린 입장들을 종합해 보면, 대충 위와 같은 논증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재구성된 김재권 교수의 논증 형식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논증의 전제들이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 논증의 전제들을 살펴 보면, 김재권 교수가 데이빗슨의 '심물 인과 관계 원칙'을 강화시켜, 데이빗슨이 원하는 심물 관계의 무법칙성을 법칙성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데이빗슨이 동의할 수 없는 전제는 전제(2)일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빗슨은 심물 인과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3)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 즉 참다운 인과 관계는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으로 예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데이빗슨이 (2)를 받아들인다면, 그 역시 김재권 교수의 결론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2)를 제외한 전제들 모두는 데이빗슨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전제(2)에 관한 한, 필자는 김재권 교수의 편에 서고 싶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바램에 따라 행동한다는 생각을 어떤 의미로서든 약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직관 때문이다. 즉, 필자는 우리의 행위에 관한 자율성을 유보할 수 없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직관이

잘못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직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이 직관을 단순한 가정으로 여기기 바란다.)

(2)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가 부딪치는 문제는 결론이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 앞에서 우리는 환원주의가 행위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었다. 과연 환원주의가 행위의 자율성과 양립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전통적으로 ‘결정론과 의지의 자유’ 문제 형식으로 수많은 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여기서 깊이 다룰 생각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 필자는 환원주의가 행위의 자율성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 가정 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물론적인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위 논증의 결론은 국지적 환원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김재권 교수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국지적 환원은 훌륭한 환원이다. 그리고 환원주의는 행위의 자율성과 양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의 논증은 전제에서 [즉 전제 (2)에서] 데이빗슨에 대항하여 행위의 자율성을 강화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견해인 환원주의를 결론으로 도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의 논증 어딘가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디에 잘못이 있을까?

우리는 (5)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리학만 엄밀한 학문인 것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사회학도 엄밀한 학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포돌을 비롯한 많은 기능주의자들과 소위 ‘대중 심리학(folk psychology)’에 기반을 둔 심리학자들은 그러한 확신 또는 희망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회학이나 역사학이 그들의 학문적 위상을 ‘사회과학’이나 ‘역사과학’으로 ‘승격’시키려는 최근의 경향도 이들 특수 학문들의 이론 체계가 법칙적이라는(또는 법칙적이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데이빗슨이 요구하고 있는 엄밀함과 결정론적임을 법칙의 요건으로 삼는 한 심리학이나 사회학 또는 역사학이 제시하는 법칙들이 법칙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일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좀 엉뚱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즉, 필자가 문제 삼고 싶은 전제는 (3)이라는 것이다. 과연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과 관계'는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으로 예화되는 인과 관계 뿐이다"는 '존재론적 인과 관계 원칙'은 참일까? 이 원칙은 데이빗슨과 김재권 교수가, 그리고 대부분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그 생각이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견해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 즉 유물론적인 세계관과 행위의 자율성을 양립시키면서 '두 개의 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전제 (3)은 전제 (5)가 주장하는 바, 즉,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은 미시적인 물리적 입자들을 관계시키는 차원에만 존재한다"는 원칙이 예화하는 인과 관계만이 참다운 인과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즉, 모든 거시적 인과 관계들은, 그것들이 미시적인 차원의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한, '참다운' 인과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고 김재권 교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 다음과 같은 추리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

- (가) 모든 거시적 차원의 현상들은 미시적 차원의 물질이 가진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 (나) 만일 (가)라면, 미시적 차원의 물질이 거시적 차원의 현상을 결정하는 법칙이 있다.
- (다) 만일 미시적 차원의 물질이 거시적 차원의 현상을 결정하는 법칙이 있다면, 거시적 차원의 현상은 이 법칙을 이용하여 환원적으로 설명된다.
- (라) 따라서 거시적 차원의 현상은 '결정 법칙'을 이용하여 환원적으로 설명된다.

실제로 김재권 교수는 이러한 추리에 해당하는 언질을 자주 비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다)는 거짓이다. (다)를 다음과 같이 기호화 해 보면, 이점이 잘 드러난다 :

$$(*다) \quad (P_i \rightarrow M_i) \rightarrow (P_i \leftrightarrow M_i)$$

(*다)의 전진을 미시적 차원의 물질이 거시적 차원의 정신 현상을 법칙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때, 유물론적 직관을 가진 사람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의 후건은 전진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진에서는 미시적 차원의 물질이 거시적 차원의 정신 현상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후건에서는 전자가 후자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러한 비약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필자가 아는 한, 김재권 교수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조건문이 어떻게 참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 바 없다. 나아가 우리는 이 조건문이 거짓이라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들어, 기능주의의 입장이 그러한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김재권 교수가 기능주의를 비판하면서, 기능주의가 다음과 같은 종특정 환원주의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을 주목한 바 있다 :¹⁸⁾

$$Si \rightarrow (Pi \leftrightarrow Mi)$$

그러나 기능주의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기능주의가 말하는 정신 현상이 물질적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서, 기능주의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기능주의는 기껏해야 다음과 같은 것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

$$Si \rightarrow (Pi \leftrightarrow Mi)$$

기능주의는 미시적 차원의 물질 현상이 거시적 차원의 정신 현상에 대한 충분조건이 된다는 것만 인정하지 필요 조건도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시적 차원의 정신 현상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조건으로서의 기능적 기반이 어느 특정한 물질적 구조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능주의자는 후자만 받아들이지, 전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8. 김재권, "비환원적 유물론의 신화," 224-5.

이러한 지적이 옳다면, (라)에서 말하고 있는 바, 즉 거시적 차원의 현상이 '결정 법칙'을 통하여 환원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그리고 이 생각이 잘못이라면, 거시적 차원의 현상은 환원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된다. 그런데 (2)는 이 환원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시적 현상이 인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5)의 조건 하에서의 (3)은 이러한 인과 관계가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으로 예화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할 때) 참다운 인과 관계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2)와 (3)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행위의 자율성을 말하는 (2)를 택할 때, 행위에 대한 거시적 인과 관계가 참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3)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3)을 포기하게 되면, 물론 재구성된 김재권 교수의 논증은 국지적 환원을 결론으로 도출시킬 수 있는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개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장정에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그럼 대안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 필자는 이 물음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된 이유들로 인해 어떤 종류의 환원주의든 환원주의는 우리의 세계관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환원주의를 극복하면서 행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도 심신 인과 관계의 허구성 때문에 우리가 택하고 싶은 이론은 아닌 것 같다. 남은 것으로 기능주의가 있고, 이 이론은 어떤 이론보다도 그럴듯한 점이 있다. 행위에 관한 우리의 직관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주의는 소위 거시적 차원의 인과 관계가 법칙적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법칙주의적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즉, (5)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3)을 거부함으로써, 거시적 차원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원칙적인 입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입지가 (5)를 거부해야만 유지된다는 이유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었다. 그러한 이유는 기능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를 통해서 검토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검토는 이 글에서 할 일이 아니다.

김재권 교수는 거부하고 있지만, 필자는 '하향적 인과 관계'를 포함한

거시적 차원의. 환원을 전제하지는 않지만, 참다운 인과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¹⁹⁾ 그리고 이러한 인과 관계는 굳이 법칙적인 필요도 없고, 또 법칙적이어서도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필자의 생각이 옳다면, ‘두 개의 원인’ 문제는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된다. 신경생리학적인 구조에 의해 실현된 생각과 바램등의 거시적 차원의 현상들이 새로운 인과적 단위를 이루어 대뇌의 어느 부분으로 하여금 몸을 움직이는 신호를 발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행위의 자율성은 훌륭하게 보존된다. 우리의 생각과 바램이 직접적인 원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 개의 원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바램등의 정신적인 원인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견해를 단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만 제안하고 싶다. 미시적인 현상들과 다양한 층의 거시적 현상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존재계에 대한 ‘전통적인 유물론적 고정 관념’을 필자가 의도하는 바 대로 전환시키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대대적인 작업에 해당하고, 이는 이 글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약속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19. Jaegwon Kim, “Emergence, Nonreductive Physicalism, and the Problem of ‘Downward Causation’”: “The Disunity of Psychology as a Working Hypothesis?”

참고문헌

- Block, Ned (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Psychology* Vol. 1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 ,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Psychology* Vol. II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Borst, C. V. (ed.), *The Mind/Brain Identity Theory*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70).
- Chisholm, R. M., *Perceiving*(Ithaca,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57).
- Churchland, Patricia Smith, "A Perspective on Mind-Brain Research," *Journal of Philosophy* 77 (1980)
- Churchland, Paul, "Eliminative Materialism and the Propositional Attitudes", *Journal of Philosophy* 78 (1981)
- Davidson, Donald,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 Clarendon Press, 1981).
- , "Mental Events," in Lawrence Forster and J. W. Swanson (Eds.), *Experience and Theor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pp. 79-101; Davidson [1981] 에 재수록 되었음.
- , "The Material Mind," in P. Suppe et al (ed.), *The Proceedings* (North-Holand Publishing Company, 1973); Davidson [1981]에 재수록 되었음.
- , "Psychology as Philosophy," in S. C. Brown (ed.), *Philosophy of Psychology* (Macmillan Press and Barnes, Noble, Inc. 1974); Davidson [1981]에 재수록 되었음.

- Hempel, Carl. G., "The Logical Analysis of Psychology,"
in A. Marras (ed.), *Intentionality, Mind, and language* (Urban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2.
pp. 115-131; Block [1980]에 재수록 되었음.
- Feigl, H., "The 'Mental' and the 'Physical'",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II, pp. 370-497.
———, "Mind-Body, not a Pseudo-Problem," in Sidney
Hook, *Dimensions of Mind*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0; also in Borst [1970])
- Fodor, Jerry, "Special Sciences, or the Disunity of Science
as a Working Hypothesis". *Synthese* 28 (1974) :
97-115; *Language of Thought*의 서문으로 재수록.
- , *Language of Thought* (New York : Crowell, 1975).
———, *Representations : Philosophical Essays on the
Foundations of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assachusetts : The MIT Press, 1981) Kempbell,
K., *Body and Mind* (New York : Doubleday, 1970)
- Kim, Jaegwon, "Psychophysical Supervenience as a
Mind-Body Theory," *Cognition and Brain Theory* 5(2)
129-147.
———, "Psychophysical Law" in Ernest LePore and
Brian McLaughlin, eds., *Actions and Events :
Perspectives on the Philosophy of Donald Davidson*
(Oxford : Blackwell, 1984)
———, "Concepts of Supervenienc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5 (1984) : 153-76.
———, "Mechanism, Purpose, and Explanatory
Exclusion," in *Philosophical Perspectives*, 3 (1989)
- 김재권, "비환원적 유물론의 신화," 「철학과 현실」(철학문화연구소,

1990 여름)

—————, “Explanatory Exclusion and the Problem of Mental Causation,” in Enrique Villanueva (ed.), *Information, Semantics and Epistemology* (Oxford : Blackwells, 1990)

—————, “Emergence, Nonreductive Physicalism, and the Problem of ‘Downward Causation’,” 발표 예정.

—————, “The Disunity of Psychology as a Working Hypothesis?,” 발표 예정.

Kim, Kwang Su, *Ontology, Appearance and the Mind-Body Proble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1986) (필자의 학위 논문)

김광수, “데이빗슨의 心身論”, 「철학」 26 (한국철학회, 1986 가을)

Lycan, Willam G., “Psychological Laws”, in J. I. Biro and Robert W. Shahan (eds.), *Mind, Brain, and Function : Essays in the Philosophy of Mind* (Norman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82).

Nagel, Ernest, *The Structure of Science* (New York : Harcourt, Brace World, 1961)

Putnam, Hilary, “The Nature of Mental States,” in W. H. Caitan and D. D. Merrill (eds.), *Art, Mind, and Religion* (Pittsburgh : University of Puttsburgh Press, 1967), pp. 37-48; Putnam, *Mind, Language and Reality : Philosophical Papers*, vol.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에 재수록 되었음.

Rorty, Richard, “Mind-Body Identity, Privacy, and Categories,” *The Review of Metaphysics*, XIX, 1 (September 1965).

—————,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Smart, J. J. C., "Sensations and Brain Processes,"

Philosophical Review 68 : 141-156; Borst, C. V.

(ed.), *The Mind/Body Identity Theory* (New York :

St. Martins's Press, 1970)에 재수록 되었음.

Woodhouse, M., "A New Epiphenomenalism?", *Austr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52 (1974)